

1999년도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 盛況

崔亨燮 과총회장 인사 “과학기술력은 난국극복의 원동력”

金鍾泌 총리 등 과학기술인 5백여명 참석



▲ 科總주최 '99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崔亨燮**)는 **金鍾泌** 국무총리 초청 1999년도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를 1월 7일 오후 5시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閔寬植** 과총명예회장, **崔亨燮** 과총회장, **朴益洙**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金炳洙** 과총 차기 회장 등 관계인사 및 원로·중진 과학기술인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과학기술인 역량 모아주기를

이날 **金鍾泌**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출범과 함께 과학기술체를

과학기술부로 승격시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새로이 했다”면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를 목표로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과학기술입국을 국가정책의 중심 과제로 천명했다”고 말했다.

金鍾泌 국무총리는 이어 “과학기술이 우리 경제재건과 지식기반사회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도적 연구개발사업을 앞장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재도약의 기운이 움트고 있는 이때,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우리 미래의 과학입국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崔亨燮** 과총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산업경쟁력의 핵심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력 개발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므로 우리 과학기술인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이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도약과 단합을 기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金炳洙** 과총 차기회장은 “21세기 과학한국 건설에 우리 과학기술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자”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했다.

경제위기 타개 공헌 다짐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宋鉦煥** 과학기술부차관, **權肅一** 전과학기술처장관, **金始中** 광주과학기술원이사장, **李正五** 한국과학기술원석좌교수, **趙完圭** 한국생물산업협회장, **朴肯植** 경북대석좌교수, **崔順達** 한국과학기술원인공위성센터명예소장, **權彝赫** (주)녹십자명예회장, **李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모두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을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21세기 선진국 진입에 공헌하는 과학기술인이 되자고 다짐했다. ①7